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5호 【루계 제24708호】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훌륭히 건설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한광상동지, 박명철동지, 김정관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로경준동지, 김진근동지를 비롯한 건설부대 지휘관들과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운기동지가 맞이하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또 하나의 은정깊은 선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경치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당창건기념일까지 휴양소를 세계적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일떠세움으로써 최고사령관의 전투부대, 힘있는 척후대,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로서의 위용을 다시금 떨치였다.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휴양소관리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비품들,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륜전기재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사랑의 자욱을 또다시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소, 휴양각, 휴식터, 산보길, 다용도야외운동장 등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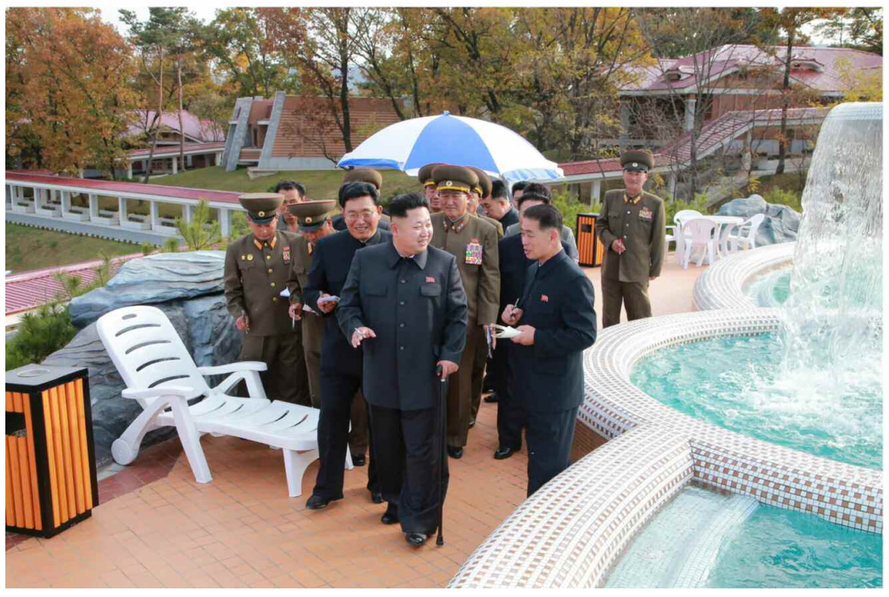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된 휴양소,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휴양소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양소의 중심건물인 종합봉사소를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식사실과 연회장은 물론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도 흠잡을데가 없으며 전자도서실, 협의실, 록화물방영실,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대상들을 비반복적으로 멋지게 일떠세웠으며 건물의 외벽타일과 지붕재색갈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휴양각내부도 고급호텔수준이라고, 다용도야외운동장도 꾸려놓으니 휴양생들이 마음껏 운동을 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서로 떨어져있는 건축물들을 하나로 련결시킨 외랑이 볼수록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휴양소의 모든 요소요소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받아들인것이 좋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령에네르기, 령탄소, 록색건축방향으로 나가는것만큼 과학연구부문과 설계부문에서 새 세기 건축개념을 알고 재생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의 자연풍치를 더욱 돋굴수 있게 휴양소주변에 지피식물과 나무를 심고 포도덩굴을 정성껏 조성했으며 구내길에 청석을 깔아놓으니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고, 호안정리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양소종업원살림집과 탁아소와 유치원도 만족하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우리 조국의 모습,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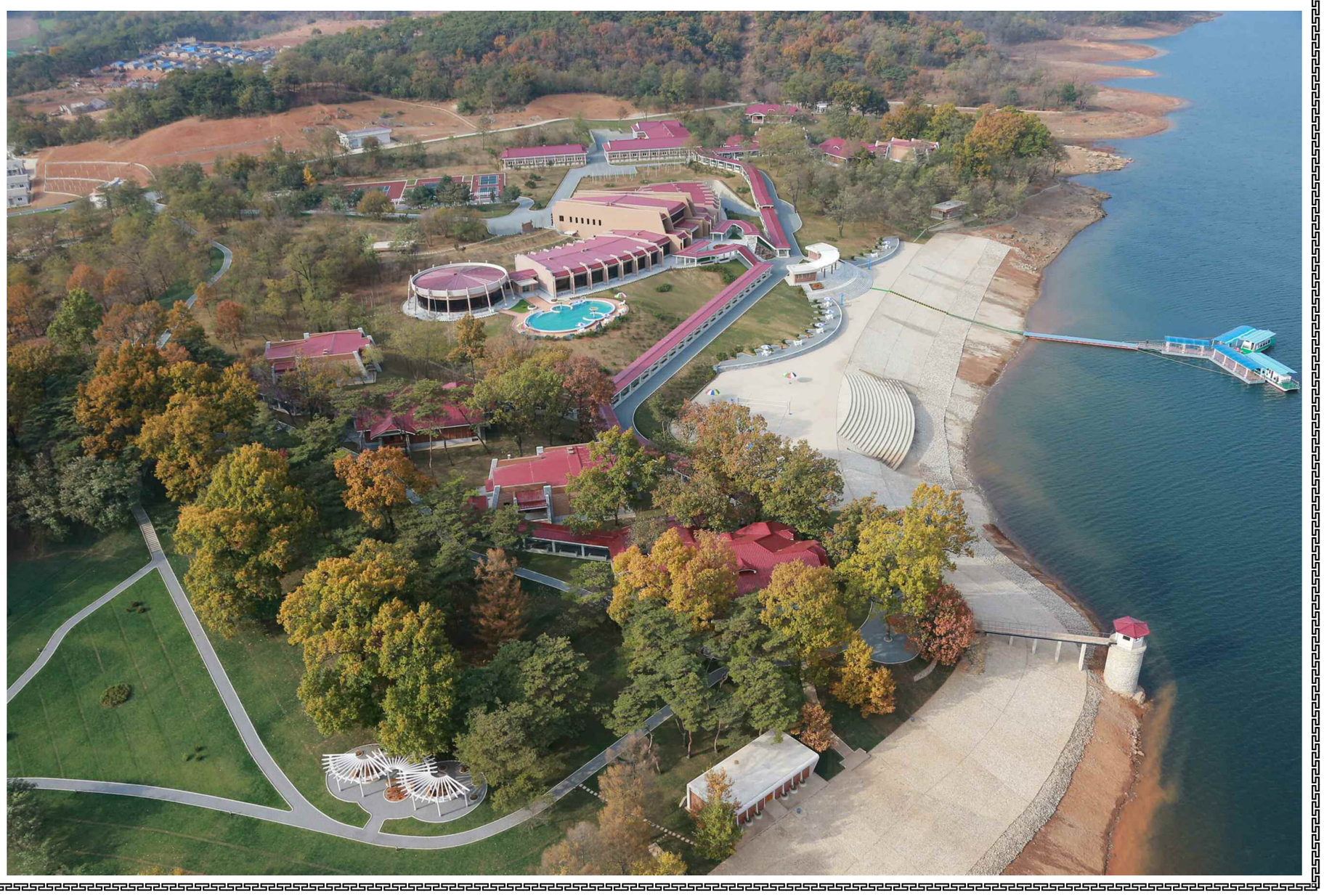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후세에 길이 전할 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또다시 창조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또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주변정리에서 인민군대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한 군부대들에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어머니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과학자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영원한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박영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 고문인 인민배우 박영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높은 비행술을 보여준 비행사들을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령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도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또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앞으로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미국의 VOA방송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캄보쟈신문 《꼭 쏜때피앱》,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통로》, 프랑스잡지 《누벨 옵쎄르바떼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보도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이며 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걸작품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하고있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세계적인 과학자거리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뜨루드》, 《아르구멘띠 이 팍띠》, 《노바야 가제따》, 《노비예 이즈베스찌야》, 엔떼웨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마야크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가제따. 루, 일본의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알제리의 인터네트신문 《알빌라드》, 아르헨띠나공산당 인터네트국제문제블레찐 《데 또다스 빠르떼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 알제리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빛을 뿌리는 체육강국

남조선 각계의 위인칭송열기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의 활로를 펼쳐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칭송의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련합뉴스》, 《자주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은원수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 관람》, 《김정은시대 북에 체육열풍》 등의 제목아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체육선수들을 만나주시고 전문선수단의 훈련과 대중체육경기들을 자주 보아주시며 지도하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체육인들을 내세워주시고 체육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신데 이어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신것은 《북 최고지도자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체육지도는 주체체육을 강화하고 국제대회에서 국가의 명성을 떨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시려는 의도》, 《체육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집단주의를 발양시키려 하고있다.》고 언론들은 평하였다.

《SBS》 등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체육강국건설을 국가목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체육관, 5월1일경기장 등을 찾으시여 체육시설의 신축 및 개건사업을 위해 심혈을 바쳐가신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북의 곳곳에 로라스케트장,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장 등 훌륭한 체육시설들을 꾸려주도록 하시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언론들을 통해 공화국의 체육현실을 목격하고있는 남조선 각계는 《최근 최고령도자의 각별한 관심속에 북에서는 체육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늘어나고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사랑속에 북의 전지역에 체육열기가 뜨겁게 분출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경향신문》, 《통일뉴스》, 《KBS》, 《뉴스1》 등 언론들은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축구, 력기를 비롯한 여러 경기들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들을 일제히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기를 통한 북 녀자축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북 녀자축구의 미래》, 《북의 력기능력은 메달수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번 대회에서 무려 여러차례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한데서도 과시되였다.》, 《경기에서 북의 선수들은 투지와 정신력에서 최고였다.》고 경탄을 표시하였다.

한 체육애호가는 조국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민족의 기상을 떨치는 이북체육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세계의 그 어느 팀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완강한 정신력과 집단력,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애국심에 있다고 피력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체육인은 령도자가 위대하면 민중도 모두 강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애국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고 재능을 꽃피우며 참된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참으로 부럽다.

이북선수들이 세계강자들을 이기고 1위의 단상에 올라 우리 민족을 금메달로 빛내이고있는 것은 위대한 령수를 모시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북의 체육인들은 금메달을 쟁취하면 그 영광을 제일먼저 김정은최고사령관께 드린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위인을 모시여 체육강국으로 등장하는 이북을 보면서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북의 현실은 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무명의 선수도 세계패권자로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한 륙상애호가는 이북의 체육은 아시아를 뛰여넘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있다, 그것이야말로 강성국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북의 벅찬 모습이다고 격정을 터쳤다.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도 우리 체육인들의 성과를 두고 《세계로 뛰는 북스포츠》, 《북은 머지않아 체육강국으로 될것이다.》고 찬탄하였다.

언론들은 최근 우리 공화국이 국제체육경기들에서 이룩한 승리들에 대해 전하면서 《북의 성과는 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가 환희롭게 열리고있음을 선언하는 장쾌한 승전포성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제1위원장의 령도력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시대의 선구자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수 있다.

당과 수령의 기억속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존경과 선망속에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선군시대 공로자!

이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투쟁정신, 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한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적과 혁신으로 조국은 비약의 큰걸음을 힘있게 내디디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인민은 없다.》

영웅, 이것은 누구나 안고 사는 꿈이다. 값높은 삶을 누리려는 인민의 이 꿈을 이루어주시려고, 온 나라 인민을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으로 키워주시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치신 크나큰 로고를 잊을수 없다.

30여년전 기름작물연구에 꽃나이청춘을 다 바치고도 변함없는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가고있는 녀성과학자를 찾아내시고 그의 소행이 그리도 기특하시여 온 나라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오로지 당과 수령이 바라는 애국충정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는 시대의 선구자들의 앞가슴에 공민의 최고영예인 영웅메달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신 그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들고 영웅적인 삶을 지향하던 격동의 그 시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이 한몸 혁명을 위하여 서슴없이 바칠 혁명적각오가 투철한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은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시대의 선구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리도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선군조선의 기상을 세계앞에 보란듯이 시위하고 세계마라손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체육인도,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꾼 산림감독원이며 북방의 산골군에서 세벌농사장훈을 부른 녀성관리위원장도 다 우리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시대의 영웅들이였다.

《응당 할 일을 한 제가 무슨 영웅이겠습니까. 이름없던 한 소녀의 가슴에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고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준 고마운 그 품, 평범한 사람도 영웅으로 키워내는 위대한 사랑이 있어 이 나라에 영웅의 대부대가 자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시대의 영웅으로 행복한 삶의 절정에 오른 녀성과학자 한사람만의 진정의 웨침이겠는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가보아도, 국경도시 만포의 한 공장의 뜨락을 거닐어보아도 아니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들려온다.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인생의 절정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들이.

그래서이다. 날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눈에 띄는 전변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온 나라 각지에서 시대의 선구자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온 사회에 애국충정의 열의가 세차게 굽이쳐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은.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강성국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에 이르는 나날에 수많은 시대의 영웅,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견결한 투쟁정신과 숭고한 소행은 가장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결사옹위하며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당과 조국이 바라는 곳이라면 그 어떤 초소도 가리지 않고 인민의 행복과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묵묵히 일해가며 순탄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신뿐아니라 대를 이어 애국의 길을 걷고 또 걷는것이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하나같은 모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김유봉동무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2.8직동청년탄광으로 자원진출한 때로부터 20여년동안 중대의 탄부들을 이끌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월 1만생산목표를 수십번, 년 10만생산목표를 여러번이나 돌파함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힘들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언제나 노래 《장군님 따르는 마음》을 부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가 하는 하나의 열망으로 심장을 끓인 영웅,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자신보다 먼저 동지들의 안전을 생각한 당세포비서였던 시대의 영웅 김유봉동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는 시대의 영웅 김유봉동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지향과 열망이 가득 차넘치고있다.

오늘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주신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 군중교양과장 한화숙동무는 수십년세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해설선전하는 보람찬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왔다.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수십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조국의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준 이 천땅의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소행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던가.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시대의 영웅,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각오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전당적,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전개되여 우리 사회의 풍조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1970년대말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년대와 년대를 이어 시대의 선구자들의 대오는 나날이 더욱 용용한 대하를 이루고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이 땅의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으로, 선구자로, 위훈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의 사상과 뜻을 가장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애국충정의 대부대가 무성한 숲을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현경철

재동역-강동역-남포역구간

철도개건착공식 진행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재동역-강동역-남포역구간 철도개건착공식이 21일 동평양역에서 진행되였다.

착공식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로씨야기발이 게양되여있었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착공식에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룡남대외경제상, 원필종 철도성 참모장, 림혜경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 동발전상과 일행,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착공식에서는 먼저 올레그 쉬쇼브 로씨야 브리지그룹총사장과 원필종 철도성 참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로외교관계설정 66돐이 되는 올해에 평양에서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철도개건착공식을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로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리익에 부합되는 대규모협조계획실현의 첫 단계인 철도개건이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과 리룡남대외경제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경제협조관계는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착공식은 로씨야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이날 착공식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연회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떠났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외무상, 김형훈 보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지금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이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관리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경제가 국가의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조건과 환경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 방법은 고정불변할수 없으며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데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여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사회주의원칙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이다.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고 경제전반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도 없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 이것이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길이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사회주의경제의 기초이며 사회주의경제는 집단적로동에 의하여 발전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제를 지도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사회주의적소유를 침해하거나 집단주의원칙에서 탈선하면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성격과 우월성, 그 생활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사회전반에 부정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적용되는 모든 방법은 철저히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집단주의적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사회주의적소유를 옹호고수하고 국가적, 전사회적리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생산자들의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 관리의 전과정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고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으로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객관적경제법칙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는것이다.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실리를 따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식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나아가서 국가가 커다란 인적, 물적손실을 입게 되고 경제적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적으로나 개별적부문, 단위들에서나 경제적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사업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자면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에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작용하며 그 요구가 관철되는 과정이 곧 경제건설, 경제발전과정이다. 마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객관적법칙에 관계없이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혹심한 주관주의이며 과학에 대한 무지의 표현으로 된다. 경제지도와 관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법칙들과 그와 관련한 경제적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도 경제적실리도 보장할수 있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객관적경제법칙들에 철저히 의거하고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또한 과학기술과 생산, 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 통일적발전은 현시대 경제발전의 주되는 특징이다.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발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생산에 제때에 널리 받아들이는 과정,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적극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 생산과 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를 떠나서는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없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 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체들이 새 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고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월5일청년광산과 천지윤활유공장을 비롯하여 지금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기업관리를 잘 짜고들어 커다란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있는 현실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확립의 기본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수

애국의 열정 다 바쳐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자

공화국선수권대회를 통해 본 우리 체육인들의 앙양된 열의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드높은 신심에 넘쳐

련일 치렬하게 벌어지는 축구 1급 남, 녀경기를 두고

얼마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체육인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각지 체육단감독,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올해의 공화국선수권대회가 더욱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째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 녀경기에는 4.25, 압록강, 기관차팀을 비롯하여 각각 10여개의 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벌어지고있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 선수들이 올해에 진행된 여러차례의 축구 1급경기들에서 쌓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완강한 훈련과정에 더욱 튼튼히 다진 육체기술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자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하였다.

압록강팀과 기관차팀의 경기들은 보다 속도화되고 여러가지 경기정황에 따르는 합리적인 전술들이 적용되는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팀들의 흔들림없는 대형유지는 팀의 전술을 살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선수들이 경기상황을 순간에 예측할수 있는 능력과 정황처리의 신속성,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을 잘 발휘한것으로 하여 좋은 경기성과를 거두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자경기에서 4.25, 홰불, 선봉팀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경기과정에 좋은 성과가 련이어 이룩되는 속에 매 팀 선수들은 공과의 첫 접촉에 의한 신속한 정황처리, 각이한 정황에서의 정확한 공련락 등 재치있는 기술들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다양하게 운영해나가고 있다.

판모봉, 봉화산팀 선수들도 이번 경기를 통하여 기술을 더욱 련마하고 좋은 경험들을 쌓고있다.

지난 시기 경기들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던 강팀들과 당당히 맞서는 여러 팀 선수들의 야심만만한 경기의식이 분위기를 더 한층 돋구어주고있는 속에 평양, 월미도팀들에서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어놓는 경기성과를 이룩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축구 1급 녀자경기는 모든 팀들에서 세계적인 녀자축구발전추세에 맞게 지난 시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팀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들이 눈에 띄게 알리는것으로 하여 기대가 커지고있다.

4.25, 소백수, 압록강, 평양팀을 비롯하여 여러 팀들이 경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경기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술적의도들이 경기들마다에서 적극 발휘되고있다. 중장거리차넣기에 의한 득점률을 높이고 선과 선에서의 수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으로 하여 매 팀들간의 경기는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열띤 분위기속에서 올해의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경기는 종전에 존재하던 팀들간의 기술적차이가 현저히 줄어든것과 같은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역습속공에 의한 문전돌입, 정확한 문전결속능력 등에 있어서 어느 팀이 제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1급팀대렬에 들어선 년한이 길지 않은 팀들도 좋은 발전면모를 보여주어 관중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현재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 녀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들의 경기성적과 경기상황을 놓고볼 때 어느 팀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겠는지 예측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인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할 각지 축구감독, 선수들의 필승의 신심과 비약의 열의는 앞으로 보다 놀라운 경기성과들을 안아올릴것이며 온 나라에 축구열풍,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글 및 사진 지혁철

감독의 역할과 경기성과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청춘거리탁구경기관에서는 공화국선수권대회 탁구경기가 진행되였다. 4.25, 압록강, 홰불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치렬한 금메달쟁탈전을 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훈련과 경기의 성과는 감독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탁구경기에서 압록강체육단은 7개의 세부종목중 4개의 세부종목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자랑찬 성과의 비결의 하나가 다름아닌 압록강체육단 탁구감독들의 높은 경기지휘능력에 있다.

압록강팀이 평양팀과 남자단체경기를 할 때였다. 종합점수 2:2 동점이 된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경기가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전술을 잘 살리지 못한다면 우승을 기대할수 없었다.

그때 압록강체육단 감독들은 상대팀 선수의 경기심리가 약하다는것을 간파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감독들은 자기 팀 선수가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격, 방어를 능숙하게 배합하면서 마지막까지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상대팀 선수의 심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경기는 압록강팀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7회 4승의 방법으로 진행한 기관차체육단과의 녀자복식결승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압록강팀이 종합점수 0:3이라는 불리한 정황에 처하였을 때 관람자들은 기관차팀이 이길것이라고 단정하고있었다.

그러나 압록강체육단 감독은 신심을 잃지 않았다.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자기 팀 선수들이 상대팀이 먼저 공격을 하게 유도한 다음 반공격을 들이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팀 선수들은 예상을 뒤집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설수 있었다.

녀자단체경기에서 우승한 홰불팀의 성과도 감독의 높은 경기지휘능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결승경기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5번째로 출전한 홰불팀 선수는 마지막회전에서 많은 점수차이로 앞서나가다가 련속 3점을 실점당하였다. 이때 홰불팀의 김성현감독은 타임아우트를 요구하고 선수가 전술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1회전에서 승리했을 때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번밖에 요구할수 없는 타임아우트를 효과적으로 리용한 감독의 경기지휘는 마침내 홰불팀이 녀자단체경기에서 우승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탁구 녀자단식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선수는 4.25체육단의 김남해선수였다. 나이가 어린 김남해선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데는 다양한 기술과 특기를 소유할수 있도록 훈련지도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한 감독의 불같은 열정이 슴배여있다.

안철영감독은 평상시 김남해선수의 특기를 살리기 위한 훈련지도를 적극 짜고드는 한편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였다.

특히 세계적인 탁구발전추세에 맞게 공격형훈련에 힘을 넣었다. 승리는 이렇게 경기전에 훈련장에서 마련되였던것이다.

참으로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탁구경기는 선수들의 기술발전과 경기성과를 이룩하는데서 감독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였다.

본사기자

신진선수들도 선수권보유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륙상은 체육에서 기본이며 다른 모든 체육종목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종목입니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들중의 하나는 륙상경기이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공화국선수권대회 륙상경기에서 성과가 좋은 단위는 기관차체육단이다.

김태성, 김성준동무를 비롯한 기관차체육단의 일군들은 륙상종목에서 체육단이 거둔 성과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감독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신진선수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특히 체육단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감독, 체육과학연구사, 체육의료연구사들사이의 협동작전을 강화한데 기초하여 훈련강도를 최대로 높이였다. 하여 이곳 륙상선수들은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전체 륙상세부종목수의 절반에 가까운 금메달들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남자 삼단뛰기경기에 참가한 김일환선수를 비롯한 여러명의 나어린 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주목을 끌었다.

기관차체육단뿐만이 아닌 다른 체육단들의 신진선수들도 이번 륙상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녀자 5 000m달리기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레성강체육단의 리금춘선수, 녀자 1 500m달리기에서 우승한 원산농업종합대학체육단의 박진향선수, 녀자 3 000m장애물달리기에서 1등을 쟁취한 수양산체육단의 주옥별선수들은 다같이 나이는 어리지만 경기에서 전술적의도를 적극 살리면서 경기운영을 잘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절찬을 받았다.

신진선수들이 펼쳐놓은 놀라운 우승장면들에는 훈련지도를 강화하면서 선수들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온 리상희, 문영남, 주일명동무와 같은 여러 체육단 감독들의 불같은 열정이 뜨겁게 비껴있다.

공화국선수권대회 륙상경기에서처럼 중앙체육단뿐아닌 지방체육단들의 신진선수들속에서 공화국선수권보유자들이 속속 배출되고있는것은 나라의 체육발전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매우 기쁜 일이다.

이를 통해서도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가는 각지 체육인들의 드높은 신심과 락관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레스링강자들을 키워내겠다

레스링협회 일군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레스링협회 부서기장 리상진동무를 만나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레스링경기도 치렬하게 진행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부서기장: 지난해에 달라진 국제레스링경기규칙에 의하면 고전형레스링, 자유형레스링, 녀자레스링경기의 몸무게급이 종전의 7개로부터 8개로 늘어났다. 또한 점수채점방법, 승부결정방법 등도 달라진것으로 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에서 고도의 정신력과 높은 육체적능력, 기술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번 경기는 달라진 국제레스링경기규칙이 적용된 첫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인것으로 하여 선수들의 열의도 보다 높아지고 지난 시기보다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에서는 4.25체육단 선수들이 고전형레스링의 7개 몸무게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었고 자유형레스링, 녀자레스링경기에서는 4.25, 압록강, 기관차, 룡남산, 대외경제성체육단 등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자: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에서 어느 선수들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는가.

부서기장: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의 최우수선수들로서는 고전형레스링에서 4.25체육단의 방진철선수가, 자유형레스링에서 룡남산체육단의 리송철선수가, 녀자레스링에서 압록강체육단의 리수옥선수들이 각각 선정되였다.

올해의 공화국선수권대회 레스링경기에 참가한 4.25체육단의 정명숙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평시에 련마한 강의한 정신력과 육체적능력,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기자: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 레스링선수들이 국제경기무대들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에 더욱 고무되여 분발해나선 각지 체육단선수들의 앙양된 열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부서기장: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 레스링선수들은 올해에만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뿐만아니라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아시아청년레스링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으며 특히 각지 체육단선수들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우리 레스링협회 일군들은 선수들의 이 앙양된 열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경기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일 재능있는 레스링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주령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1일 총련일군대표단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족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와 스위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스위스에서의 풍경건축설계》가 21일 평양대외문화교류소에서 개막되였다.

우리 나라와 스위스기발들이 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스위스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쟝-쟈끄 드다르델 주조 스위스련방 특명전권대사, 토마스 피슬러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 스위스대사관, 스위스외무성협조사무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사진전시회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나라와 스위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스위스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쟝-쟈끄 드다르델 주조 스위스련방 특명전권대사가 2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스위스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스위스대사관 성원들과 토마스 피슬러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 사무소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스위스련방 대통령 디디어 부르크할테르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스위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의사선생님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는 의료일군들속에는 **라선시 선봉지구 상현진료소 의사 변입순**동무도 있다.

지난 18년세월 호담당의사로 일해오고있는 그는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있다.

담당구역의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을 빠짐없이 장악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고있다.

언제인가 한 전쟁로병이 앓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한밤을 꼬바기 새워가며 치료전투를 벌리였고 그가 완쾌되였을 때에는 여러가지 건강식료품들을 안겨주며 건강증진을 위해 지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한 영예군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그가 끝내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은 물론 주민들모두가 변입순동무를 가리켜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강순녀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도착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과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디서나 과일나무를 심어 그 덕을 본다

《여기가 우리 사는 감나무마을입니다》

천내군 풍전협동농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강원땅의 유명한 감산지라면 안변군을 꼽는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희한한 풍치가 천내군에도 펼쳐졌다.

군소재지에서 수십리 떨어진 풍전협동농장 마을에 감풍년이 들었다. 감나무들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아지들이 휘여졌다. 온 농장마을이 누렇고 빨간 감알속에 묻혀 마치도 감나무농장을 방불케 한다.

둘러볼수록 황홀하고 이채로운 풍경이여서 마음이 흐뭇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나무를 계속 많이 심고 잘 관리하여 감을 많이 따야 하겠습니다.》

30여그루의 감나무숲속에 들어앉은 리당위원회사무실에서 우리는 리당비서 왕철진동무를 만났다. 감나무가 정말 많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결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원도에 찾아오실 때마다 감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시면서 그 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농장에서는 작업반들뿐아니라 집집에도 많은 감나무를 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해마다 1 000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작업반과 집집에 나누어주었고 감나무들을 심고 새집들이를 하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농장에서는 감나무밭에 정보당 50t의 해염토를 내여 지력을 높이였고 땅다루기와 가지자르기, 3회이상의 약뿌리기 등 비배관리의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농장에는 세대당 평균 15그루의 감나무가 있습니다. 리안의 집집에 있는 감나무만 하여도 수천그루이며 여기에 과수작업반과 각 작업반들에 있는 감나무들까지 합치면 무려 1만여그루에 달합니다.》

리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며 해마다 많은 감을 수확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여러곳에 지원사업도 한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어느 집이나 감나무숲에 묻혀있었다.

우리는 30여그루의 감나무가 있다는 제5작업반 농장원인 정영길동무의 집에 들어섰다. 그는 어떤 해에는 4t이상의 감을 따들인다고, 정말 우리 당정책이 좋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알고보니 이 마을은 집집에 감나무가 하도 많아 언제부터인지 감골로 불리우고있었다.

관리위원장 김영범동무는 우리에게 감나무를 많이 키우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덕을 보고 있는데 대하여 자랑하였다.

감나무는 한번 심으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오래동안 감을 딸수 있다. 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지며 락엽은 질좋은 거름으로 된다. 잎과 과일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마을의 풍치를 돋구는데서도 제격이다. 열매가 잘 달린 해에는 한그루에서 100여kg씩 수확할수 있다. 열매에는 당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많기 때문에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

정녕 당의 은덕에 행복이 커가는 마을, 과수원화가 실현되여 기쁨의 노래가 넘치는 마을이였다. 하기에 풍전리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긍지에 넘쳐 이렇게 자랑하군 한다.

《여기가 우리 사는 감나무마을입니다!》

본사기자 황연옥

온 마을이 자랑하는 과수원집

평원군 월일리 19인민반 박중섭로인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집주변에 과일나무를 심으면 꽃도 보게 되고 과일도 먹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과수원집으로 불리우고있는 평원군 월일리 19인민반 박중섭로인의 가정을 찾았다.

군소재지에서 15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박중섭로인의 집어구에 당도하니 과일향기가 물씬물씬 풍겨왔다. 울타리를 따라 사과, 배, 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이 정말 볼만 하였다.

사과를 수확하던 집주인인 박중섭, 리영숙로인내외가 우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과나무가 30그루입니다. 그리고 배, 복숭아, 감, 백살구, 추리, 대추, 포도, 앵두나무들이 다 합쳐 18그루입니다.》

《그래 한해 그 나무들에서 과일을 얼마나 땁니까?》

흥미진진한 우리의 물음에 박로인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해마다 2.5정도 땁니다.》

로인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를 집뜨락으로 안내하였다.

놀라운것은 이 가정에서 수십그루나 되는 과일나무를 얼마 안되는 작은 면적에 심고 가꾸고있는것이였다.

로인내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을사람들이 말하던것처럼 《과수박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생을 운전사로 일해온 박중섭로인에게 있어서 과일나무재배는 그야말로 생소하였다. 하지만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보게 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이들 부부는 집뒤뜨락 등성이에서 돌을 추어내고 거름을 낸 다음 과일나무를 심었다.

첫해에 어린 사과나무 5그루를 심었으며 다음해부터 그 수를 계속 늘여나갔다.

그 나날에 박중섭로인은 과수기술일군수첩을 비롯한 많은 참고서들을 보고 실천경험도 쌓아나가면서 과일농사를 착실하게 해나갔다. 그리고 가정에서 돼지,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길러 한해에 2t이상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과일나무 한그루당 50kg이상씩 냈다. 그리고 봄이면 가지자르기, 벌레잡이, 약뿌리기 등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알심있게 해나갔다. 이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 몇년후부터 과일수확량이 부쩍 늘어났다.

감동속에 과수원집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박중섭로인은 벙글벙글 웃음을 지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정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저 나무에서는 300kg이상의 사과를 땄습니다. 과일나무를 가꾸는 재미, 과일을 따는 재미에 세월이 가는줄 모르고 삽니다. 제일 좋아하는건 손녀이구요.》

로인은 당정책에 우리 인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가 다 밝혀져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마을의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덕을 보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과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우리는 꽃향기, 과일향기 넘쳐날 마을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특파기자

황해남도 밤나무농장들에서

많은 밤을 따들였다

밤나무숲 우거진 황해남도 밤나무농장들에서 올해 밤농사를 잘하였다.

봉천, 배천, 청단, 연안군의 밤나무농장들에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밤을 넉넉히 먹이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밤이 익는족족 제때에 수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기슭같은데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수백정보에 달하는 봉천군의 밤나무숲에서 밤을 따들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세대들처럼 밤나무숲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농장의 밤분조초급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쁨에 넘쳐 밤을 수확하였다.

특히 지난 20년간 돌박산을 개간하여 근 20정보의 밤나무림을 조성하고 애써 가꾸어온 가동밤분조의 신세순동무와 그 가족들이 청춘기를 자랑하는 밤나무숲에서 많은 밤을 따들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가동, 대아밤분조의 분조장들인 리성호, 김종일동무를 비롯한 농업근로자들이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날마다 많은 밤을 수확하였다.

배천군의 밤나무숲에도 풍성한 가을이 펼쳐졌다.

배천군 밤나무농장의 여러 작업반들에서는 잘 익은 밤을 허실없이 제때에 따들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밤수확에 들어갔다.

김상호동무를 비롯한 화산작업반원들과 강호, 화양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밤나무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한알의 밤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였다.

청단군 밤나무농장과 연안군 밤나무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올해 밤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도의 밤나무농장들에서는 수확한 밤을 평양시를 비롯한 군밤봉사단위들에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뜨거운 마음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수도의 거리가 나날이 환해지고있다.

시안의 그 어느 거리를 가보아도 젊음으로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가슴벅차게 안겨오고있다.

건듯 들린 가없이 푸른 하늘을 떠이고 시원하게 자기 모습을 바꾼 공중건늠길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정갈하게 꾸려진 지하건늠길들과 미끄러지듯 달리는 산뜻한 려객뻐스들을 보아도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에 마음이 저도모르게 즐거워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중건늠길과 지하건늠길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가로등주와 전차선로전주들의 보수와 도색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수도의 면모를 보다 일신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당창건기념일전까지 이 모든 대상들의 보수와 도색작업을 형성안의 요구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도의 면모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일신하려는 협의회참가자들의 결의와 의지는 한결같았다.

협의회끝에 전투목표가 정해졌고 해당 일군들이 현지에 파견되였다.

긴장한 전투들이 벌어졌다.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맡은 작업과제를 무조건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이고 의지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치렬한 전투의 앞장에는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구역급기관 일군들이 서있었다. 낮에는 맡은 사업들을 하고 밤이면 전투장에 달려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 일군들의 모습은 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시적으로 공중건늠길과 지하건늠길이 가장 많은 중구역이 전투의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렸다.

모든 일군들이 한대상씩 맡고 내려가 작업에 떨쳐나선 근로자들과 일손을 맞잡고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서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밖에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기되는 모든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맡겨진 대상들의 보수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공중건늠길보수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구역에서는 일군들모두가 떨쳐나 공사를 립체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며칠동안에 모든 계단판들을 새로 교체하고 도색까지 끝내야 하는 전투의 하루하루는 긴장한 속에서 흘러갔다.

어찌 선교구역만이랴. 모란봉구역과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 보통강구역, 대성구역을 비롯한 모든 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한가지 일을 해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최상의 질적수준으로 완성하려는 불타는 충정을 안고 창조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불과 보름도 안되는 기간에 시안의 전반적인 공중건늠길과 지하건늠길들의 보수와 모든 거리의 가로등주, 전차선로전주들의 보수와 도색을 높은 수준에서 끝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도려객운수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려객뻐스들의 도색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려 거리의 풍치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수도는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그 모습을 날마다 일신해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조국의 불빛을 지켜가는 참된 애국자들

평안북도배길표식사업소 랍도등대 등대원들을 찾아서

이른아침 신의주항을 떠난 등대봉사선 《등대 10.3—3》호는 한낮이 퍽 지나서도 계속 달리고있었다.

가도가도 끝이 없을 바다, 바로 수평선 저 너머에 조국의 한 부분인 등대를 지켜 누가 보건 말건 깨끗한 애국의 량심을 바쳐가는 공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더욱 뭉클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륙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서해상의 외진 섬 랍도는 2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였다. 그러던 곳에 등탑이 일떠서고 새 주인들이 보금자리를 펴기 시작했다. 몇명의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용봉사선이 다니고 분교가 생겨났다.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실은 비행기가 날았다. 랍도는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날이 더 가까이 자리잡게 되였다. …

선장 정영일동무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배는 어느덧 섬기슭에 가닿았다.

등대장 조은선동무와 등대원들인 안병수, 조덕남동무들 그리고 그들의 안해들인 서광복, 허미옥, 인정순동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외진 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리운것이 사람이라더니 그들은 우리를 붙잡고 너무도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우리는 섬마을사람들의 따뜻한 인정미를 느끼며 등대원들과 함께 등탑이 서있는 섬의 봉우리로 향했다.

바위투성이섬에 굽이굽이 뻗어있는 미끈한 포장길도 이채로왔지만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등탑과 그 주위를 둘러친 담은 우리에게 생각밖의 놀라움을 주었다. 배를 상징하는 닻과 바다를 의미하는 파도를 섬세하게 형상하여 쌓은 담에 손을 얹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니 마치 대형선박의 갑판우에 서있는듯 한 기분이였다.

이 머나먼 섬에 조각가나 건설부문의 고급기능공들이 왔다간 모양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웃음속에 바라보던 등대장은 《다 우리 동무들 솜씨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등탑을 개건할것을 결심하고 전망도를 그리던 일이며 등탑내외부타일붙이기와 담축조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던 나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등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 자기들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 한껏 어려있었다.

등기가 설치된 등탑의 3층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흔히 등대라고 하면 큰 광학설비와 전동장치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자그마한 조명설비 하나뿐이였다.

《이것이 륙해운성 해운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새로 개발한 등대설비입니다. 빛수감에 의해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며 보임거리도 그전에 비해 3배나 길답니다.》

태양빛전지에 의해 조명을 보장하는 이 설비로 해서 이제는 연유를 전혀 쓰지 않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는 등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곳 등대원들과 가족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갑자기 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레드등들에서 하얀 불빛이 세차게 뿜어져나오면서 조명설비가 고르롭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어둠이 깃든것이다. 등대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우에 등대원들의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까지 어우러져 바다는 금빛으로 일렁이고있었다.

당의 사랑이 깃든 태양빛전지판과 액정텔레비죤수상기를 통해 매일 영화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면서 저녁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등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탑을 내리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풍금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조덕남동무는 지금 분교의 유일한 학생인 안병수동무의 아들이 며칠째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한 시랑송련습을 하고있다고 귀띔해주었다. 알고보니 풍금을 타며 화술지도를 주고있는 교원은 조덕남동무의 안해였는데 그는 분교가 생기자 섬을 찾아온 쉽지 않은 녀성이였다.

우리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분교로 이어졌다. 분교앞에 이르니 《3중영예의 붉은기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 랍도분교》라는 간판이 눈뿌리를 뜨겁게 하였다.

진정 우리 당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것이며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얼마나 좋은것인가!

3명의 등대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소학교분교, 지난 근 20년간 여기에서 소학교과정을 마친 여러명의 학생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오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인정순교원의 지도밑에 열정적으로 시를 읊는 안충국학생의 모습을 보며 가슴뜨거워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집집마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즐거운 노래소리…

단 3명의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있는 섬이였지만 여기에 외로움이란 없었다.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사랑이 그늘없는 해빛으로 따사롭게 비쳐 랑랑한 글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나날이 높아만 가니 고마운 그 은정에 보답해갈 등대원들과 가족들의 애국의 마음은 또 얼마나 커갈것인가.

등대불빛은 조국의 불빛이고 등대원들은 그것을 지키는 애국자들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는 우리의 가슴속에 등대불빛은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정다운 섬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등대섬을 떠났다.

랍도는 멀어져갔다. 그러나 등대의 그 불빛은 우리의 가슴속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와닿았다.

글 본사기자 서남일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강원도에서

립체률동영화관건설 적극 추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립체률동영화관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새로 일떠서는 립체률동영화관에는 영화관람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여러가지 오락들도 할수 있게 전자오락실, 전자사격장 등이 갖추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새로 일떠서는 립체률동영화관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공사 전과정에 대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건설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심화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건설에 동원된 단위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맡겨진 공사과제를 공정별, 날자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도록 하고있다.

송도원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하루빨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착공한지 불과 며칠만에 기초굴착을 끝낸데 이어 기초콩크리트치기와 골조공사, 내외부미장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지금 내부마감작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립체률동영화관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한㎡의 미장작업을 하여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문천강철공장을 비롯한 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원산시의 근로자들이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겨주고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제25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 개막

제25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프로그람경연에서는 프로그람개발도구, 콤퓨터비루스와찐, 모의실험실습, 원격교육, 체육경기모의분석, 콤퓨터지원설계, 기계번역프로그람경연이 벌어지게 된다.

조작체계 및 보안, 인공지능 및 조선어정보처리, 생산공정 CNC화분과 등 17개 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는 프로그람전시회에는 천수백건의 각종 프로그람들과 여러가지 장치, 요소들이 출품되였다.

여기에는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정보화수준을 높인 성과자료들, 대학, 전문학교들과 콤퓨터수재양성기지들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내놓은 프로그람들도 있다.

개막식이 2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프로그람개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사상과 정치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경연 및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식의 프로그람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적극 추동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양어장에 넘치는 기쁨

여기는 바다먼 고장인 삭주군의 식료공장 양어장이다.

여기서 제손으로 기른 물고기를 한가득 건져내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당정책을 관철해가는 기쁨과 보람이 웃음꽃되여 피여난다.

자체로 꾸린 양어장에서 여러가지 생산부산물, 풀먹이를 리용하여 기념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물고기를 길러내는 근로자들, 지방원료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물고기기르기도 잘한 이들이다. 해방전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물고기대접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는 산골, 우리 당의 크나큰 은덕에 의해 바다멀리에 있는 이 고장에서 그 이야기가 옛말로 된지 오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의 자욱이 여기에 새겨진 때로부터 삭주땅에는 인민생활향상의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생산정상화의 동음 높이 울리며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던 나날 이곳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양어를 잘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 기쁨을 더해주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꾸려진 양어장에서 길러낸 물고기가 공장근로자들과 탁아소어린이들에게 공급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공장구내에 차넘치는 근로자들의 웃음소리를 흐뭇하게 들으며 지배인 정원필동무가 일군들에게 하는 말이 감동깊다.

《저 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생산도 양어도 더 잘해나갑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고향땅이 잊지 못하는 참된 실농군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농산제7작업반 반장이였던 박춘근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동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련포협동농장벌에 풍요한 가을이 왔다.

벼가을이 한창이던 어느날, 제7작업반포전에 이르러 벌을 바라보는 관리위원장 문용철동무의 가슴은 못 견디게 저려왔다. 언제나 벌에서 살다싶이 하던 옛 7작업반장의 모습을 더는 찾아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탐스럽게 잘 여문 벼이삭들의 설레임소리는 그의 머리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왔다. …

지난 6월초 어느날이였다.

밤새 앓음소리를 내며 잠 못 이루던 제7작업반장 박춘근동무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는 남편을 걱정하는 안해를 뒤에 남기고 포전으로 향하였다. 소금기가 많아 애를 먹는 논들에 마지막보식을 하려면 일찍 서둘러야 하였다. 논배미들을 다 돌아본 그는 또 논물관리가 걱정되여 물길쪽으로 힘든 걸음을 옮기였다.

집을 나선 때로부터 두시간정도 지났을가, 박춘근동무는 심한 동통을 느끼며 물길옆에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고향땅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그날부터 20여년간 분조장, 작업반기술원, 작업반장으로 알곡증산을 위하여 헌신하던 박춘근동무는 이렇게 우리결을 떠나갔다.

그가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들의 권고를 들은것은 지난해 10월이였다. 그러나 가을걷이를 끝낸 다음 치료를 받겠다고 했고 겨울에는 또 농사차비를 끝낸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뒤로 미루었다.

올해 4월 농장일군들의 손에 이끌려 도인민병원에 갔던 박춘근동무는 예상치 않던 진단을 받았다. 일군들은 당장 중앙병원으로 가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보라고 못을 박았다.

《모내기를 끝낸 다음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박춘근동무의 대답이였다.

모내기가 한창이던 5월 중순 매일 밤늦게 들어와 밥술을 들다말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새벽이면 남먼저 포전으로 나가는 남편이 걱정되여 안해 리영실동무는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봉춘이아버지, 이러다가 큰일나겠어요. 오늘 당장 떠납시다.》

그러는 안해의 손을 잡으며 박춘근동무는 절절하게 말하였다.

《여보, 모내기철엔 아궁앞의 부지깽이도 뛴다는데 작업반장인 내가 포전을 떠나면 우리 작업반농사가 어떻게 되겠소?

모내기를 다 끝내고 꼭 가겠으니 약속하기요. …》

모내기가 시작되여 한달 남짓한 기간 박춘근동무는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집에 들어와 신문이나 텔레비죤화면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올 때마다 박춘근동무는 눈물이 글썽하여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놓고 풍요한 벌에 우리 원수님을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소. …》

이렇듯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올 소중한 꿈을 안고 살던 박춘근동무였다. 늘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부르며 그렇게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싶어한 그였지만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자기가 가게 되였을 때에도 분조장이 가야 분조농사가 잘된다고 하면서 1분조장의 등을 떠밀어보냈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박춘근동무는 당의 농업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었으며 선진농업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였다. 당에서 맡겨준 작업반장구실을 잘해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박춘근동무는 농사에 온갖 정력을 쏟아부었으며 안해도 부림소관리공으로 일하게 하여 작업반부림소가 농사에서 한몫하게 하였다.

하기에 작업반원들은 누구나 그를 두고 땅과 말하는 실농군이라고 말하였다. 좋은 논을 이웃작업반에 넘겨주고 소금기가 많은 논을 맡았을 때에도 박춘근동무는 농장원들과 토지정리를 하고 물길을 내서 옥답으로 만들었다.

오늘도 농장마을에 가면 박춘근동무의 집을 쉽게 찾을수 있다. 다른 집들은 새로 짓거나 개건하였지만 작업반장의 집은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가 지은 집그대로이기때문이다.

어느날 남편이 목재를 얼마간 얻어다가 토방에 쌓아놓은것을 보고 안해는 이제야 집수리를 하려는가부다 하고 내심 기뻐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보니 한 작업반원의 집수리에 쓰라고 한대도 남기지 않고 다 보내주었다.

이 일을 두고 나무람하는 안해에게 박춘근동무는 말하였다.

《여보, 우리 작업반원들이 분배도 많이 타고 집수리도 하니 얼마나 좋소. 우리 집은 마지막에 수리하기요.》

쌀쌀한 새벽에 남보다 일찍 나오는 모판관리공이나 뜨락또르운전수에게 자기의 솜옷도 벗어주고 집에서 내의와 신발도 내다준 인정미많은 작업반장이였다.

…

관리위원장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드넓은 포전의 잘 익은 벼이삭들은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박춘근작업반장처럼 불타는 소원을 안고 깨끗한 량심으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을 받들라.

특파기자 박동석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기네국방성병원에서는 강연회가, 에티오피아 아라야구강병원과 가브리엘병원에서는 좌담회와 영화감상회가,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에서는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나이제리아 요베주 토지조사성에서는 도서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말레이시아 꾸알라 룸뿌르 콤플렉쓰 쎌랑고종합청사에서는 사진전시회가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진행되였다.

도서, 사진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서들,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옥류아동병원》, 《평양의 대기념비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뚜레병영 제1특공대장은 《백승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였다.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은 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당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조선로동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를 펼치신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은 길이 백승을 떨칠것이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이다.

1950년대초 미국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원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강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조선을 더 잘 알고 따라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나이제리아 요베주 토지조사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활동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우뚝 솟아올랐다.

말레이시아 엠비판광유한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구상에 수많은 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강위력한 당, 통일단결을 실현한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절감하였다.

조선은 놀라운 속도로 변모되고있으며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리라고 굳게 믿는다.

성명과 담화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타이조선친선협회가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으면서 고르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군건설과 강화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창건된지 2년도 안되던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덤벼든 미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지난 세기 말엽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수호한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에로 조선인민을 불러일으켜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 대중문화생활거점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일떠세워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 바뜨리츠 미요비츠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당건설리론과 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정당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다.

* *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69년간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을 혁명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시였으며 조선전쟁에서 미제를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근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이 절정에 달하였던 엄혹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진두에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게신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신문, 방송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인민대중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하시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고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다고 하면서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렬거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가 있어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일떠서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성과가 달성되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백승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였다.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은 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령도의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데 대하여, 전당에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비결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이라는데 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도 거기에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게 하시였으며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들을 제시하시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나라의 경제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조선로동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신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당이 언제나 불패이라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쯔》는 《인민을 이끌어 근 70년》이라는 제목으로 창건후부터 오늘까지 력사의 온갖 시련을 헤치며 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우리 당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캄보쟈 에프엠 90.5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는 김정은제1비서이시다.

인민사랑은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이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것을 당부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신념에 넘쳐있다.

이 나라의 압싸라 TV 및 라지오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빛나게 계승된 《ㅌ.ㄷ》의 사상과 로선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ㅌ.ㄷ》결성 88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0월 17일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88돐이 되는 날이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의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과 결별하고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에로 떨쳐나설수 있게 한 계기로 되였다.

《ㅌ.ㄷ》는 자기의 투쟁목적이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였다.

《ㅌ.ㄷ》의 사상과 로선은 조선로동당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ㅌ.ㄷ》가 내세운 강령과 리념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로씨야대통령 쓰르비아를 방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6일 쓰르비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이 나라 대통령 또미슬라브 니꼴리츠와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상 알렉싼다르 부취츠와 담화를 하였다.

회담과 담화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회담끝에 에네르기, 철도, 군사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문건들이 조인되였다.

방문과정에 뿌찐대통령은 파쑈도이췰란드강점자들로부터의 베오그라드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일본의 성노예범죄 부정행위 폭로

미국 죠지 워싱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가 최근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부정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극우익정객들속에서 성노예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성노예피해자들은 명백히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이것은 지난 세기 80년대와 90년대에 이미 일본출판물과 고노담화를 통해 공인된 사실이라고 하면서 성노예범죄부정행위가 일본의 대외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업형편

미국에서 11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6만 4 000명에 달하였다. 16일 미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공업생산 감소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8월에 공업생산량이 그 전달에 비해 1.8% 감소되였다. 14일 유럽동맹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은 중동평화의 교살자

최근 팔레스티나정부가 이스라엘의 강점을 종식시킬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이미 안보리사회 리사국들에 배포된 결의안은 2016년 11월을 이스라엘이 동부꾸드스를 포함하여 1967년부터 강점하고있는 모든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철수하는 마감시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측통들은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되면 이스라엘의 강점을 지체없이 끝장내기 위한 리사회의 결심이 확인되게 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때문에 팔레스티나의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울것으로 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월 팔레스티나는 단결된 힘으로 독립국가창건위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민족해방운동(파타흐)과 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이 련합한 잠정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령토를 영구강점하고 중동의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이스라엘당국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수 없었다.

통일정부수립에 대한 보복으로 유태복고주의정권은 그 무슨 이스라엘학생살해사건을 구실로 지난 7월초부터 하마스의 자치지역인 가자지대에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을 들이댔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줌으로써 분쟁해결의 중재자로서의 허울을 벗어버렸다.

미국방성은 이스라엘주둔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비상물자들인 무기와 탄약의 무제한한 사용권한을 이스라엘에 주었으며 미국집권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미싸일방위체계를 위해 추가로 2억 2 500만US$의 자금을 지출할데 대한 법안에 서명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이스라엘군은 50일간 가자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작전을 벌려 2 130여명의 팔레스티나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으며 1만 85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식성명을 통해 하마스를 테로단체로 몰아대는 한편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이른바 자위적행동으로 비호두둔해나섬으로써 분쟁사촉자, 전쟁광신자로서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마디로 미국이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의 중재자로 나선 근본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중동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 써먹을 충견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당국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팔레스티나의 약 400ha에 달하는 토지를 저들의 소유로 한다고 공포하고 동부꾸드스에 2 500세대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법무도한 령토팽창정책을 거리낌없이 추진하고있다.

팔레스티나정부는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이스라엘의 강점책동에 대처하여 지난 9월부터 이스라엘의 령토강점을 종식시킬데 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립장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관측통들은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만을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중재역할에 더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국제무대에 직접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문제를 상정시켜 끝을 보려고 한다고 평하였다.

미국이야말로 중재자의 탈을 쓴 중동평화의 진짜교살자, 파괴자이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이룩되자면 거기에 뻗쳐진 미국의 추악한 마수부터 뿌리채 제거되여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제재책동 비난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서방의 제재는 가혹하였지만 벨라루씨인민은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면서 그는 서방은 저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조소하였다.

미국의 원유가격조작행위 단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6일 한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원유가격조작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제원유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비롯한 원유수출국들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원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을 석유수출국가기구(오페크) 성원국들에 호소하였다.

군사지휘관들의 능력을 높일것을 호소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15일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군사지휘관들의 능력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현대적인 군사기술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휘관들이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전문군사지식으로 무장하는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할수 있는 근본열쇠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협조

꾸바와 예멘이 16일 두 나라 공무원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5일 로씨야와 몽골은 두 나라를 련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첫 국산제통신위성 발사

아르헨띠나가 16일 첫 국산제통신위성을 쏴올렸다.

《아르싸트-1》로 명명된 이 위성은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로케트발사기지에서 발사되였다.

위성은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수자식텔레비죤방송중계와 손전화봉사를 제공하는데 리용되게 된다.

수출성과

싱가포르에서 9월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17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벼가을

단평 승냥이의 가면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어느 한 회견장에 나타나 한 말이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그는 《우리는 제국으로 되려 하지 않는다. 제국의 시기는 지나갔다. 지금은 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시기이다.》라고 횡설수설하였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궤변이 아닐수 없다.

케리의 이 말을 곧이들을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것이다.

국내외에 3 000여개의 군사기지들을 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내정간섭행위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황폐화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소용돌이치고있다.

그래 제국으로 되지 않겠다고 력설하는 미국이 어째서 수많은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있는가.

제국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미국이 어째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권과 전횡, 침략과 내정간섭을 일삼고있는가.

케리의 이 말은 날고기만 먹고 사는 승냥이가 풀만 먹고 량순하게 살겠다는 소리인데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판판 다르다.

전쟁터들에서 맥이 빠져 허우적대는 저들의 꼴이 너무도 비참하여 더 많은 나라들을 침략책동에 끌어들이려는 비렬한 속심으로부터, 자국은 승냥이제국이 아니라 순한 양의 나라이니 제발 동맹국, 동반자로 여기고 저들의 침략정책에 합세해달라는 오그랑수로부터 그따위 망발을 늘어놓았다.

교활한 미국의 수법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있다.

라명성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책동을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책동을 규탄하여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날조된 자료들을 류포시키고있는것은 공화국을 전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경제적봉쇄 등 비렬한 수법들에 매여달리고있으며 이러한 책동은 최근시기 더욱 우심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의 지배자, 헌병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로부터 초래되고있다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한 모든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고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이 중지되는데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저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행위들을 그만둘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제재에 맞서나가고있는 로씨야

로씨야가 미국의 제재책동에 강력히 맞서나가고있다.

현재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로씨야가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생산품으로 대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로씨야로 하여금 자기의 경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주고있다.

로씨야의 한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공업생산량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기계제작분야와 강철생산량이 늘어났다. 올해 7개월동안 제조업분야의 장성률도 2.6%를 기록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로씨야정부의 노력으로 식료품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되였다. 지난 8개월동안 농업생산량은 5% 장성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생산장성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로씨야가 발표한 전망적인 년간 경제장성률을 릉가할수도 있다.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책동이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로씨야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8월 오바마는 우크라이나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대로씨야제재를 더욱 강화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서방의 대로씨야제재는 당초에 예견했던바와 같이 로씨야경제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있다. 이제 로씨야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투자가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면서 그는 《뿌찐대통령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동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미 택한 로선을 계속 유지하든지 선택해야 할것이다. 후자를 택하는 경우 자국경제와 자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뿌찐대통령은 로씨야가 서방의 대로씨야제재에 맞서 조치를 취한것은 로씨야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는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기본원칙을 포기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정치적목적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훼손하면서 감행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지난 9월 로씨야에서는 국제적인 투자와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개막회의에 참가한 메드베제브수상은 로씨야경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막연설에서 수상은 《2014년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발발, 크림반도의 로씨야에로의 병합, 서방의 대로씨야제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력사교과서에 격변의 해로 기록될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제재와 맞제재로 이어지는 대립의 현실을 페부로 느껴야 한다, 서방과 로씨야에 이와 같은 대립은 불필요하며 나쁜 결과를 가져올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수상은 회의에서 로씨야는 아시아중시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씨야와 아시아의 협력강화는 객관적과정이다, 로씨야는 아시아나라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로씨야는 씨비리와 극동지역에 14개의 선행발전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아시아나라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서 씨비리횡단철도와 바이깔-아무르간선철도를 더 확장하려 하고있다.

로씨야는 안정된 자립경제를 건설하는것으로써 미국의 반로씨야제재책동에 맞서나가려 하고있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박춘식

사고

—기네의 동북부지역에서 16일 달리던 화물자동차가 뒤집혀져 9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앞서 13일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수단의 나흐랄 닐주에서 14일 뻐스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6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진

뉴질랜드의 동북부수역에서 14일 리히터척도로 6.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와카타네로부터 동북쪽으로 455㎞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에 앞서 13일 남부지역에서도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41164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